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운명이 바뀐 두 여자의 치열한 요리 대결

MBC 주말극 '신들의 만찬' 내달 4일 첫선

'대장금'부터 '맛있는 청춘' '내 이름은 김삼순' '식객' '파스타'까지 요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꾸준히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다.

다음달 4일 첫선을 보이는 MBC 주말극 '신들의 만찬'도 요리 대결을 통해 꿈과 사랑, 도전을 이야기한다.

31일 오후 장충동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동운 PD는 "재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엇갈린 운명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 노력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라며 "여기에 뒤바뀐 운명이라는 강한 소재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는 한식의 세계화 움직임에 맞춰 한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야기 배경은 한식의 메카인 가상의 한식당 아리랑. 이곳에서 뒤바뀐 운명의 여성 요리사 2명이 요리 대결을 통해 꿈과 사랑을 펼쳐간다.

제작진은 요리 대결이라는 큰 틀에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을 더해 극적 재미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성유리와 서현진이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요리사 고준영과 하인 주역을 맡았다.

성유리가 연기하는 고준영은 아리랑의 4대 명장인 어머니 성도희의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와 떨어져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요리사의 꿈을 키워간다.

성유리는 "요리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상우·서현진·성유리·주삼욱〉

서현진이 연기하는 하인주는 댄서였던 친일파를 잃고 도희의 손에 자란다. 인주는 도희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아리랑의 주인 자리를 놓고 준영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작파'로 주목받은 서현진은 "인주는 굉장히 노력파인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준영을 만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성도희는 전인화가 연기한다. 도희는 실력과 품위를 겸비한 최고의 한식 요리사로 친필을 사고로 잃어버린 후 마음 한편에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간다.

전인화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음식과 한국 전통을 지키려는 명장의 이야기가 욕심 나더라도" 작품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연출>뉴스

Table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old by the 30-year-old line). It lists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 of February 1st.

Table titled 'EBS'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the EBS channel.

Table titled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the EBS Plus 1 and Plus 2 channels.

Advertisement for 'It's Greek to me' featuring a quiz about the Greek phrase 'It's Greek to me' and its meaning.

Advertisement for '千金買笑(천금매소)' featuring a quiz about the idiom '천금매소' and its meaning.

Advertisement for '니하오 풍구위' (Little China) featuring a quiz about the Chinese phrase '智能手机' (smart phone).

Advertisement for '오하오우 니혼고' (Hello Japan) featuring a quiz about the Japanese phrase '今にも雪が降りそうな天気です'.

Advertisement for '신비림' (Shinbireum) featuring a quiz about the Korean phrase '애동제자'.